

# 一部 都市地域 老人의 健康要求와 老後生活에 對한 意識構造 調査

李 仁 奎

<원주간호전문학교·건강>

## <목 차>

1. 서 론
2. 조사대상 및 방법
3. 조사 성적 및 고찰
  1.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구조
  2. 노인 의 기본연구
4. 총괄 및 요약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I. 서론

醫學의 발달과 社會 條件의 개선은 인간의 平均壽命을 연장시키고 인구의 老齡化에 따라 老人 인구를 증가시켜 왔다.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일환으로 4차년도와 더불어 醫療保護事業이 전개되고 敬老思想이 한층 고수적이며 老人人口를 위한 福利問題를 社會과 業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孝를 根本으로 하는 親子中心의 전통적인 儒敎社會이지만, 급변하는 世界潮流 및 文물의 교류에 따라 밀려 들어오는 西洋思潮을 전혀 도외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우기 이러한 西洋思潮에 재빨리 적응, 활용하도록 청년들의 思考方式을 고무시키는 機能萬能的 社會構造로서의 변화와 夫婦中心으로 변해가고 있는 核家族 構造下에서는 老人이 社會의 으로 그 效用價値가 적고 家族의 으로 고립되고

있음은 과도기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老衰現狀은 生物이던 다 겪게되는 한 과정이겠으나, 人間이 다른 生物과 다른 점이 있다면 “人生의 限界” 즉 死亡의 必然性을 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韓은 老年期에 겪게되는 情緒상태중 외로움, 초조, 우울감, 고립감, 은퇴감 등은 전술한 「人生의 限界」로서의 認識과 관련되는 更年期현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權, 安 등<sup>2) 3)</sup>은 老化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中 家族的, 文化的 環境의(疲勞, 營養, 氣候, 感染 등)요인의 비중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本 著者는 이러한 家族構造의 변화에 따라 老人들의 老後觀을 토대로 세대간에 겪는 葛藤의 原因을 具體化할 수 있도록 老人들의 기본요구를 파악하고, 老人들의 餘生을 보다 効率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적합한 老人들의 健康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本 論文을 시도하였다.

附記할 것은 老化現象과 약화된 抵抗力에 관한 연구를 65세 이상의 老人층에 75%가 한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慢性疾患에 걸려있다는 報告<sup>4) 5)</sup>를 근거로 65세 이상의 年齡層을 대상으로 정하여 편의상 分類, 分析에 이용했다.

## II. 調査對象 및 方法

1977년 5월 3일 부터 5월 30일 사이에 江原道

註 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總人口 및 住宅 調査速報 1975.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엔 60세이상 老人人口가 全體人口의 5.5%였으나 1971년엔 5.8%, 1976년 現在 6.3%였음.

原州市內 一部 地域에 거주하는 老人들을 위한 敬老堂 및 養老院 등을 저자 및 조사원이 家庭訪問하거나 設問紙를 통해 調査에 임했다. 回答式 다지선택법으로 된 本 設問紙는 豫備調査를 거쳐 보충된 것이며, 調査는 사전 훈련받은 看護專門學生 5명이 수행하였다.

답변에 응한 調査 對象者數는 家庭訪問時 부재중이었거나 記錄이 부실한 滯落數 32명을 제외한 220명에 대한 資料를 컴퓨터로 분석하였다.

### Ⅲ. 調査成績 및 考案

#### 1. 老後生活에 대한 意識構造

(1) 調査 對象者의 老人 220명에 대한 一般의 特性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1-1. 연령

	인수(비율)	인수(비율)	인수(비율)
65~69	62(53.0)	66(64.1)	128(58.2)
70~79	46(39.3)	30(29.1)	76(34.5)
80이상	9(7.7)	7(6.8)	16(7.3)

1-2. 교육정도

	인수(비율)	인수(비율)	인수(비율)
무 학	42(35.9)	65(63.1)	107(48.6)
국 중	54(47.6)	24(23.3)	78(35.9)
중 고	12(10.3)	10(9.7)	22(10.0)
고 재	6(5.1)	1(1.0)	7(3.2)
대 중	2(1.7)	3(2.9)	5(2.3)
대 재	—	—	—

1-3. 종교

	인수(비율)	인수(비율)	인수(비율)
기독교	23(19.7)	31(30.1)	54(24.5)
천주교	26(22.2)	15(14.6)	41(18.6)
불교	5(4.3)	15(14.6)	20(9.1)
없음	63(53.8)	42(40.8)	105(47.8)

1-4. 직업

	인수(비율)	인수(비율)	인수(비율)
무직	64.2	94.2	78.2
농업	16.2	1.9	9.6
상업	5.1	3.9	4.5
공업	0.9	—	0.9
교직	1.7	—	0.9
공무원	1.7	—	0.5
개인사업	5.1	—	2.7

	인수(비율)	인수(비율)	인수(비율)
학생	—	—	—
의료업	—	—	—
사무직	—	—	—
기타	5.1	—	2.7
	100.0	100.0	100.0
	117	103	220

#### 1) 年齡分布

65세~69세군에서는 58.2%로 가장 많았고, 70~79세군은 34.5%이고, 80세이상은 7.3%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 2) 學歷背景

老人들의 대부분은 無學이 84.5%이고, 國卒과 中卒의 순으로 男性의 教育程度보다 女性의 教育程度가 훨씬 더 낮아 無學만도 63.1%를 나타냈다.

#### 3) 宗教

宗教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50%내외이고 男性보다는 女性이 宗教를 더욱 많이 믿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4) 職業

老人들은 78.2%가 無職으로 다수였는데, 특히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 無職이었다. 다만 9.5% 정도의 老人만이 農事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기타 職種은 극소수였다.

#### (2) 자식에 대한 老後 依存度

1)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老後를 자식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의견여부를 家族構造形態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①親族世帶(父母 및 結婚한 자식과 同居하는 것) ②기타 親族世帶(兄弟 및 姉妹와 同居) ③核家族(夫婦, 未婚 子女와 同居) ④養老院 ⑤其他(親舊 및 親知와 同居 또는 獨身<sup>19,21</sup>)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자식에게 의존하겠다」하는 생각이 가장 높은 군이 親族世帶이고, 「의존하지 않겠다」에서는 養老院이 34.4%로 가장 높고, 核家族 29.2%, 기타 27.5%, 親族世帶가 11.4%의 순으로 가장 낮았으나 養老院인 경우 「老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겠다」에서 가장 높았다. 대개 무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의의가 없겠고, 다음에는 核家族, 기타 순으로 높아졌는데, 이들은 獨立性이 강한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존하고 싶으나 잘 모르겠다」에서는 기타가 10%, 核家族가 8.3%, 親族世帶 3.2% 순이었으나 이

註 2) 統計年報, 原州市 1976, 原州市內 65세이상 老人人口는 3,887名으로 本調査對象老人數는 이의 약 5.7%가 該當된다.

〈표 2〉

노후의 자식에 대한 의존관념

가족구조	노후의 의존					남	녀	계 (기본수)
	의존할 생각없다	의존하지 않겠다	의존하고 싶으나 모르겠다	의존하기 싫으나 모르겠다	생각해 본 일 없다			
1. 현재의 가족구조								
친족세대	74.8	11.4	3.2	6.5	4.1	28.6(63)	25.4(60)	100.0(123)
기타 친족세대	—	—	—	—	100.0	—	0.45(1)	100.0( 1)
핵가족	29.2	29.2	8.3	33.3	—	7.2(16)	3.6(8)	100.0( 24)
양로원	25.0	34.4	—	12.5	28.1	1.45(23)	4.1(9)	100.0( 32)
기타	30.0	27.5	10.0	12.5	20.0	9.1(20)	9.1(20)	100.0( 40)
계						55.45(122)	44.54(98)	(220)
2. 결혼한 자식과의 동거의사								
결혼자식과 같이 살겠다	37.2	37.2	2.9	13.7	9.0	125.4(82)	29.5(65)	100.0(234)
별도로 살겠다	2.8	68.6	11.2	11.2	6.2	12.7(28)	10.9(24)	100.0(357)
잘모르겠다	4.8	33.3	—	14.3	47.6	5(11)	4.5(10)	100.0( 21)
계 기본수	119	43	10	25	23	55(121)	45(99)	(220)
%	54.1	19.5	4.5	11.4	10.5			100.0

3. 각국의 자식과의 동거상황

國名	同居率	註
덴마크	20%	65歲以上 調査年 1968
미국	48	
영국	42	
日本	75	60歲以上 1974

것은 生活의 不安定狀態에서 아들이 있기에 한 데 불안하거나 딸만 있는데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하겠다.

「의존하기 싫는데 잘 모르겠다」에서는 核家族이 33.3%로 가장 높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력으로 살아왔는데 죽음에 이를때까지 자력이 미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인것 같다. 다음으로 養老院 12.5%; 기타 12.5%, 親族世帶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각해 본 일 없다」에서 養老院이 28.1%로 가장 높았고, 기타 20% 親族世帶에서 4.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金<sup>13)</sup>은 최근 서울지역 일노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家族과 동거하는 老人일수록 소외감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養老院 居住老人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成績도 一般家庭과 동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이들 老人들의 家庭에 대한 적대감 또는 소외감의 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本 調査에 임하는 對象者의 態度的인 영향보다도 앞으로의 敎育이나 指導方

向이 보다 未來志向的인 思考觀을 개발시킬 수 있는 측면에 역점을 둔다면 이와같은 결과는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2) 結婚한 자식과의 同居意思

〈표 2-2〉와 같이 親族世帶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老人일수록 자식에 대한 의존 뿐만 아니라 結婚한 자식과 同居를 원하는 것도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식과 별도로 살겠다」에서는 「의존하지 않겠다」가 44.2%이고, 「잘 모르겠다」에서는 「생각해 본 일 없다」가 47.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3) 老後生活에 대한 책임여부

老後生活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답변양상은 〈표 3〉과 같다. 65세~69세군은 「본인 책임이다」가 43.8%로 가장 높았고, 70세~79세에서는 가족책임이 44.7%로 높았다. 그러나 80세이상 老人에서는 본인책임이 31.2%이고, 잘 모르겠다도 31.2%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80세이상의 年齡層에서 養老院 居住老人의 배분비가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家族과의 별거에서 오는 소외감 또는 身體的, 社會的인 無力感의 認識, 養老院施設 등에서 느끼는 感情등이 社會保障에 대한 기대를 원하는 결과로 표현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잘 모르겠다」가 높은 것은 이러한 문제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정도는

80세에서 31.2%로 高率을 보였다. 성별로는 男性이 女性보다 본인 책임이라고 응답한 정도가 많았던 것은 依存性向이 짙은 女性 본래의 品性이나 女必從夫의 思考觀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표 3참조).

〈표 3〉 연령별 성별로 본 노후생활에 따른 책임 관념

노후 생활의 책임	연령			계		
	65~69	70~79	80+	남	녀	계
본인책임	43.8	33.2	31.2	42.7	38.8	40.9
가족책임	39.1	44.7	18.8	40.2	38.8	39.5
사회책임	10.9	10.5	18.8	9.4	13.6	11.4
잘모르겠다	6.2	6.6	31.2	7.7	8.8	8.2
계 기본수	128	76	16	117	103	22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f=6.  $\chi^2=15.64$  p<0.05

〈표 4〉 노후생활의 책임별 노후 경제관념

생활의 책임	본인책임	가족책임	사회책임	잘모르겠다	노후경제관		
					남	녀	계(기본수)
본인수입에 의존	26.7	4.6	—	22.2	11.3(25)	3.2(7)	14.5(32)
년금으로 살계획	2.2	—	12.0	5.6	0.8(4)	0.9(2)	2.7(6)
부동산으로 살계획	23.3	5.7	—	5.6	7.2(16)	5(11)	12.3(27)
이자로 살겠다	10.0	1.2	—	—	—	4.5(10)	4.5(10)
동거자식에 의존	25.6	79.3	12.0	27.8	21.8(48)	2.36(52)	45.5(100)
별거자식에 의존	3.3	4.6	4.0	—	0.27(6)	0.9(2)	3.6(8)
친척의 도움을 기대	1.1	—	4.0	—	0.45(1)	0.45(1)	0.9(2)
유산으로 살겠다	1.1	—	—	—	0.45(1)	—	0.5(1)
사회보장을 기대	—	1.2	60.0	11.0	4.1(9)	4.1(9)	8.2(18)
능력이 없어 잘모름	6.7	3.4	8.0	27.8	4.5(10)	0.27(6)	7.3(16)
계 기본수	90	87	25	18	54.5(120)	45.5(100)	(220)
%	100.0	100.0	100.0	100.0			100.0

d.f=27  $\chi^2=225.57$  p<0.005

및 老後責任, 자식에 대한 依存度 또는 자식과 동거를 바라는 의사, 老後經濟觀 등을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마루 社會潮流나 家族構造의 변화 등에 따라 다소 思考觀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지언정 그 實踐問題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수적이며, 현재 老後를 맞고 있는 心理的 부담감이 家族이나 자식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朴<sup>12)</sup>의 資料에서 보면 老人의 扶養義務에 대하여 老人들 자신은 62.5%가 자녀의 책임이라 했고 經濟面에서는 調査對象者의 70% 이상의 老人들이 物質的인 부양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면

#### (4) 老後 經濟觀

朴<sup>13)</sup>의 자료를 참고한다면 老人들의 當面問題로 經濟的困難(41.2%)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老後生活에 대한 生活方法이나 經營 및 責任여부를 좌우하는데 老後經濟問題에 대한 관심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표 4〉에서는 「老後生活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가 26.7%로 답변을 하면서도 「同居하는 자식에 그 經濟問題를 의존하겠다」는 생각이 25.6%이었고, 老後生活이 家族責任이라고 응답한 老人의 79.3%가 同居자식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이 되고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家族과의 經濟關係에 매우 집착하고 있는 老人들의 思考方式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현재의 家族構造

에서 자녀의 도움을 원하는 경우가 82.8%나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間接的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표 5〉는 이들의 老後經濟問題에 대한 意見을 年齡別로 분석한 것인데, 年齡이 증가 할수록 同居子息에게 經濟的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66%가 同居子息이 아니면 別居子息, 친척, 養老院 등에 의존하고 있는 實情이다.

#### 2. 老人의 基本要求

人間의 출생에서 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人生의 過程선상에서 老人은 이미 上行線의 方向

<표 5>

연령별 성별 노후경제관념

연령	65~69	70~79	80+	계		
				남	녀	계
경제관						
본인의 수입에 파트 했다.	16(12.5)	15(19.7)	1(6.3)	20.8	7.0	32(14.5)
년근으로 살겠다	3(2.3)	3(3.9)	—	3.3	2.0	2.7
부동산으로 살겠다	20(15.6)	7(9.2)	—	13.3	11.0	12.3
이자로 살겠다	6(4.7)	3(3.9)	1(6.3)	—	10.0	4.5
동거자식에 의존	57(44.5)	38(50.0)	5(31.3)	47(40.0)	52.0	45.5
별거자식에 의존	6(4.7)	2(2.6)	—	5.0	2.0	3.6
친척의 도움을 바랍	1(0.8)	—	1(6.3)	1(0.8)	1(1.0)	0.9
유산으로 살겠다	1(0.8)	—	—	1(0.9)	—	0.5
사회보장을 기대한다	8(6.3)	6(7.9)	4(25.0)	7.5	9.0	8.2
능력없어 잘모름	10(7.8)	2(2.6)	4(25.0)	8.3	6.0	7.3

d.f=18  $\chi^2=32.22$   $p<0.05$

<표 6>

노인군의 신체적인 건강상태

연령	65~69	70~79	80+	계		
				계	남	녀
신체적인 건강상태						
1. 치아건강상태						
건강하여 식사에 지장이 없다	47(36.7)	16(21.1)	2(12.5)	65(29.5)	25.6	31.1
발치로 인해 식사곤란을 느낌	38(29.7)	33(43.4)	7(43.8)	78(35.5)	39.3	31.1
의치를 사용중임	37(28.9)	21(27.6)	4(25.0)	62(28.2)	31.6	27.2
의치 할 예정임	2(1.6)	5(6.6)	—	7(3.2)	0.9	5.8
치아 없으나 잇몸그대로살고있음	4(3.1)	1(1.3)	3(18.8)	8(3.6)	2.6	4.8
2. 소화상태						
소화가 잘됨	73(57.0)	44(57.9)	8(50.0)	125(56.8)	64.2	48.6
가끔씩 소화불량을 느낌	32(25.0)	14(18.4)	5(31.3)	51(23.2)	17.8	29.1
소화제 없이는 곤란함	7(5.5)	4(5.3)	—	11(5.0)	4.3	5.8
그저 그렇다	16(12.5)	14(18.4)	3(18.8)	33(15.0)	13.7	16.5
3. 시력상태						
별로 지장이 없다	20(15.6)	7(9.2)	2(12.5)	29(13.2)	12.0	14.6
눈이 침침하다	50(39.1)	37(48.7)	10(62.5)	97(44.1)	41.9	46.6
안경쓰면 편찮다	31(24.2)	13(17.1)	1(6.3)	45(20.5)	23.9	16.5
안경을 써도 침침하다	10(7.8)	9(11.8)	3(18.8)	22(10.0)	13.7	5.8
그저 그런대로 산다	17(13.3)	10(13.2)	—	27(12.3)	8.5	16.5
4. 청력상태						
별로 지장이 없다	82(64.1)	39(51.3)	8(50.0)	129(58.6)	55.5	62.1
약간 멍하다	32(25.0)	30(39.5)	6(37.5)	68(30.9)	33.3	28.2
큰소리이어야 들린다	13(10.2)	7(9.2)	2(12.5)	22(10.0)	10.3	9.7
보청기를 끼면 도움이 된다	1(0.8)	—	—	1(0.5)	0.9	—
5. 기동상태						
기동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7(36.8)	25(32.9)	3(18.8)	75(34.1)	44.4	22.3
조금만 걸어도 땀기고 아프다	35(27.3)	29(38.2)	7(43.7)	71(32.3)	26.5	38.9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	19(14.8)	14(18.4)	2(12.5)	35(15.9)	15.4	16.5
그저 그렇다	27(21.1)	8(10.5)	4(25.0)	39(17.7)	13.7	22.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기본수	128	76	16	220	117
						103

으로 내리닫게 되는 老後에 접어들게 되고 身體的, 精神的, 情緒的, 社會的, 여러면에서 老衰現象의 변화로 老後에 孤獨과 孤絶<sup>23)</sup>은 의례히 伴侶가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Bromley는 心理的인 孤獨感和 孤絶은 治療가 된다고 하였다. 老後가 人間의 “늙어진 취”<sup>24)</sup>라고 定義되고 있는만큼 이러한 老後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앞에서 闡發한 老後觀도 중요하겠으며, 현재 老人들이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으로 갖고 있는 要求를 老後觀과 關聯시켜 間接的이나 老後問題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1) 身體的 要求

老後現象은 실제로 身體的인 여러 機能上的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客觀的으로 살펴 볼 수 있는 視力, 聽力, 齒牙 및 消化機能, 舉動狀態를 중심으로 老人들이 갖는 身體的 健康要求를 파악한 것이 <표 6>이다.

「齒牙가 건강하여 식사에 지장이 없다」는 응답은 총 220명의 調査對象者 老人中 29.5%였으며, 각 年齡別로는 65~69세에서 36.7%, 70~79세에서 21.1%, 80세 이상에서 12.5%로 나타나고 있으며 性別차이는 없었다. 老人의 年齡이 高齡일수록 健康한 齒牙의 감소로 식사에 곤란을 느낀다는 호소가 현저해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몇 都市地域老人 58%를 調査한 韓<sup>5)</sup>의 성적중 「齒牙障病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가 26.1%인 것과 유사하며 경향 역시 같았다.

이상과 같은 齒牙狀態에 비해 消化機能은 어느 年齡層이나 過半數이상에서 비교적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이 男性보다 다소 높은 消化障病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지극히 消化가 곤란하여 消化劑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약 5%정도였는데 이는 韓<sup>5)</sup>의 성적에서도 6%로 나타나고 있었다.

視力은 本調査항목중 가장 높게 불편을 호소한 항목이었는데, 「별로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가 13.2%로 낮고, 「眼鏡을 써도 침침하다」가 年齡이 많을수록 높아져 65~69세에서 7.8%이던 것이 80세 이상에서는 18.8%나 되었다. 性別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의 韓<sup>5)</sup>의 성적에서「거의 또는 전혀 視力障病가 없다」는 18.8%로 본

成績보다 다소 높았으나, 1965년대 都市地域老人을 대상으로 한 韓<sup>14)</sup>의 調査는 35.4%가 잘 보인다고 했으며, 같은 년도 農村地域調査인 林<sup>10)</sup>의 調査에서는 「잘 보인다」가 5.2%로 本調査 성적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년대나 調査地域, 調査方法 등의 차로 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消化機能狀態와 유사한 성적을 보인 聽力狀態는 58.6%에서 「별로 지장이 없다」고 했고 「큰소리라야 들린다」는 약 10%선에서 그 불편을 호소하여 비교적 타항목보다 그 障病度가 輕한 듯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年齡別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 「약간 명하다」와 「큰소리가야 들린다」가 65~69세에서 39.5% 및 9.2%, 80세 이상에서 34.9% 및 10.0%로 高年齡에 이룰수록 뚜렷한 聽力障病의 경향을 엿 볼 수 있다. 性別로는 女性이 다소 장애가 많았다.

거동상에 장애를 느끼는 정도는 高齡에 이룰수록 더욱 심해지고 男性보다 女性이 2배나 심하다. 34.1%만이 거동상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本調査에 임한 老人들의 身體障病에 관한 불편의 호소는 視力障病로 인한 불편이 월등히 높고 다음이 거동상의 불편 및 齒牙損傷 등을 들 수 있다.

美國의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老人死亡中에는 10%가 突發事故로 인한 死亡<sup>25)</sup>이었는데, 상기된 높은 呼訴率을 보이는 視力障病나 거동상의 불편은 事故 및 落傷 등의 偶發事故를 誘發시킬 가능성이 커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消化 및 聽力障病는 本調査에서 비교적 그 불편을 呼訴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齒牙損傷과 關連시켜 消化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했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身體的變化가 현저한 老人들의 좋은 營養狀態維持에 영향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年齡上으로는 年齡이 많아질수록 身體機能의 장애로 인한 불편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이 확실해지고 있고, 性別差異은 두드러지지 않는지만, 消化機能, 舉動狀態, 聽力障病의 경우에서

註 3) Dr D.B. Bromley, The Psychology Human Ageing. 藤沼晴雄監譯 地域社會研究所.

① 孤獨(Solation): 文化的인 變化와 社會的인 移動性 때문에 年下の 成人으로부터 孤立, 親知人의 死別.

② 孤絶(desolation): 絶對的으로 밀고 외지고 학상 같이 있기를 願하던 그를 갑자기 喪失하였을 때라고 하였다.

는 女性이 男性보다 다소 그 불편에 대한 호소의 경향이 많았음이 발견된다. 身體의不便에 대한 主觀的인 呼訴率이 更年期變化가 초래하는 年齡上 女性이 男性보다 다소 빠르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情緒的要求

人間이 老後에 접어들면 상기한 身體的機能上의 變化 이외에도 親이나 配偶者의 喪失, 또는 자녀의 成長에 따른 家族構造의 變化, 經濟的 能力低下로 인한 職業的, 社會的 역할의 상실 등이 老年期의 情緒狀態를 좌우하는 Stress의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다. 金<sup>7)</sup>은 이러한 시기에 있을 수 있는 老人들의 全般的인 心理的 特

性을 ①環境的 壓迫의 變化로 재배의 習慣形態의 파괴 ②個人的인 自主性이 喪失되어 의존성이 강해지며 ③健康이 衰退함으로 活動上에 制限을 받음 ④社會的身分의 喪失과 經濟的 能力의 감퇴로 열등감을 갖게 됨 등으로 설명했다.

이와같은 觀點이외에도 Moustasas나 May 등도 老人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기전이 부적절한 인간관계, 특히 家族이나 老人 주변에서의 理解不足과 不融和로 대화가 중단됨으로써 고독이나 불만이 누적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本調査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家族構造의 觀點에서 老人들이 갖는 情緒要求의 側面을 파악하고자 했다.

〈표 7〉 가족구조에서 느끼는 정서문제

인간관계	가족구조	친족세대	기타 친족세대	핵가족	양로원	기타	남	녀	계(기본수)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									
배우자		57.7	—	70.8	—	55.0	35.4(78)	14.5(32)	50.0(110)
아들		23.6	—	—	6.3	17.5	5.9(13)	11.4(25)	17.3(38)
딸		4.9	—	29.2	9.4	5.0	1.8(4)	6.3(14)	8.2(18)
친척		4.1	—	—	9.3	7.5	0.95(2)	4.5(10)	5.4(12)
친구		3.2	100.0	—	43.8	5.0	6.8(15)	2.3(5)	91(20)
기타		6.5	—	—	31.2	10.0	4.5(10)	5.4(12)	100(22)
							55.45(122)	44.54(98)	100.0(220)
2. 자식의 공경정도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다		56.1	—	58.3	28.1	60.0	36(80)	16.3(36)	52.7(116)
불만이다		4.1	—	—	—	25.0	2.7(6)	4.1(9)	6.8(15)
그저 그렇다		35.6	100.0	41.7	46.9	15.0	14.5(32)	20.5(45)	35.0(77)
잘 모르겠다		3.2	—	—	25.0	—	3.2(7)	2.3(5)	5.5(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6.81(125)	43.18(95)	100.0(220)
기본수		123	1	24	32	40			

1. d.f=20  $\chi^2=124.56$   $p<0.005$

2. d.f=12  $\chi^2=64.08$   $p<0.005$

〈표 7〉에서는 老人들이 家族內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대상으로 配偶者가 57.7%인 親族世帶老人의 답변이 높았으며, 核家族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老人도 70.8%가 配偶者였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나라의 家族構造가 점차 從的인 親子中心에서 橫的인 부부중심 的 核家族制度로 變化하고 있는 경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主要因은 老年期의 소외감에 관한 間接的인 表現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金<sup>11)</sup>의 調査에서 配偶者가 있는 老人이 없는 老人보다 소외의 감정이 적다는 보고가 밀반출해 준다고 보겠다.

한편 養老院에서 생활하고 있는 老人 32명에

대하여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으로 친구가 43.8%로 가장 높고, 아들이나 딸 등은 6.3% 및 9.4%에 지나지 않고 더욱 配偶者는 단 1명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養老院 生活老人의 年齡層이 다른 대상자보다 비교적 높았던 標本과도 관련되었으나, 配偶者의 喪失에 따른 關心度, 親密感, 소외감 등이 意識的인 無意識的인 鈍化될 可能性이 있고 家庭的인 분위기와 동떨어져 비슷한 環境 또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集團生活에서 派生된 결과로 觀察된다. 자식의 恭敬程度에 따른 滿足有無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발견된다.

즉 養老院居住老人을 제외한 다른 家族構造에서의 老人들은 모두 55% 이상 만족한다고 한 것에 비해 이 보다 훨씬 낮은 28.1%만이 만족한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겠다.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配偶者(50%), 아들(17.3%), 親舊(9.1%), 딸(8.2%), 親戚(5.5%), 기타(5.5%), 자부(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老後 老人들이 가장 가깝게 느껴

지는 사람은 配偶者이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은 자부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들의 家族構造上으로 볼때, 자부가 주부로서 核心의인 人物인데도 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老人들의 生活環境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個人主義와 經濟力이 풍부한 나라로서 자식과 同居하는 率이 낮아지고 있는 現狀<sup>2)</sup>이다.

〈표 8〉 現在の 生活에 대한 만족도

만족정도	가족들이 만족하게 대해줌	부부끼리 오손도손 산다	어른대접을 받을만 없을상	자신이 불쌍하고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많다	불쌍해도 서글프게 느껴진다	매일매일 일일이 지겹게 일어난다	남	녀	계(기본수)
1. 연령									
65~69	52.4	13.3	7.0	25.0	2.3	53.0	64.1	100.0(128)	
70~79	56.6	13.2	6.6	17.1	6.6	39.3	29.1	100.0(76)	
80+	37.5	—	31.3	25.0	6.3	7.7	6.8	100.0(16)	
2. 종교									
무종교	49.5	13.3	9.5	23.8	3.9	60.0(63)	40.0(42)	100.0(105)	
기독교	50.0	9.3	11.1	22.2	7.4	42.6(23)	57.4(31)	100.0(54)	
천주교	61.0	14.6	4.9	17.1	2.4	63.4(26)	36.6(15)	100.0(41)	
불교	60.0	10.0	5.0	25.0	—	25.0(5)	75.0(15)	100.0(20)	
계 기본수	116	2.4	19	49	9	53.2(117)	46.8(103)	220	
%	52.8	12.3	8.6	22.3	4.1			100.0	

1.  $df=8$   $x^2=17.43$   $p<0.05$

2.  $df=12$   $x^2=6.54$   $p>0.05$

〈표 8〉은 이와같은 성적을 더 잘 나타내 주는데 52.8%만이 「家族이 滿足스럽게 대해 준다. 고 했고, 「자신이 불쌍하고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22.3%, 「어른대접을 못받아 불만이고, 하루의 생활조차 지겹게 느껴진다」가 각각 8.6% 및 4.1%였다. 이처럼 現生活에 대한 滿足度를 年齡과 宗教別로 분석해 본 바로는 年齡別 宗教別로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다소 高齡일수록 家族構造內 어른의 위치에서 물러나고 있는 듯한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듯이 보이며, 滿足한다는 경우 宗教가 없는 老人보다 宗教活動을 하고 있는 老人에서 다소 滿足度가 높게 나타났을 뿐이고 보면 이러한 情緒狀態는 老人이 살고 있는 家族構造나 宗教, 年齡, 社會活動과도 무관한 共通的으로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老人들의 이러한 感情狀態의 情緒的要求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老人들이 家族關係에 집착하여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에 비해 (표 2참조) 이를 따르거나 충족되기 힘든 家族的 社會的變化로 인한 失望感은 반비례로 더욱 늘어나 老人의 情緒要求 문제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따라서 家族的 社會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오히려 요망되며, 지나친 의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老後生活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Motive 즉 활동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3) 社會的 要求

老人들에게 就業機會가 주어졌을때 일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은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32.8%이며, 다소 受動的이기는 하나 자신의 여건만 허락된다면 就業하고 싶다는 의사는 25.9%로 비교적 就業에 대한 높은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老人期의 準備

註 4) 孝橋正一, 老後老人 老後老人問題 ミネルウブ書房 p. 82

老人과 子息과 同居狀況은 1968年度 65세이상 子息과 同居率은 덴마크(20%), 미국(48%), 영국(42%)이고, 1974年 日本(60세이상)의 同居狀況은 75%이다.



〈표 9〉

就業機會에 대한 意向

취업의향 취미	일하겠다		일하지않 겠다		건강상일하 지못한다		남	녀	계(기본수)
	일하겠다	일하고싶 다	일하지않 겠다	일하지않 다	건강상일하 지못한다	지못한다			
여행, 바둑, 장기 텔레비시정동	37.4	29.3	3.0	11.1	19.2	25(65)	15.4(34)	100.0(99)	
신문, 잡지, 독서	35.7	28.6	—	—	35.7	3.6(8)	2.7(6)	100.0(14)	
꽃, 나무재배	40.3	30.8	—	7.7	21.2	9.1(20)	14.5(32)	100.0(52)	
만사가 다 귀찮다	16.4	14.5	1.9	47.2	20.0	11(24)	14.1(31)	100.0(55)	
계 기본수	72	57	4	41	46	53.2(117)	46.8(103)	100.0(220)	
%	32.8	25.9	1.8	18.6	20.9				

d.f=12       $\chi^2=4685$        $p<0.005$

課題를 위한 動機造成은 必然的인 것 같다. 韓<sup>5)</sup>의 調查에서도 社會活動을 원하고 있었다.

所得増大를 위해 온 노력을 쏟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정상 老人은 効用價値가 적은 無用之物的 觀念이 많았지만, 老人은 老人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時間과 努力을 투자해서 國家나 社會에 공헌해 왔기 때문에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존경받음만한 위치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身體的인 機能低下가 충분히 고려된 환경에서 老人들의 就業意慾에 적합한 社會的역할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的 측면에서도 老人들의 산 知識과 풍부한 經驗을 資源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양질의 生産業績을 기대할 수 있는 점으로 보겠다. 뿐만 아니라 老人들에게 精神的, 情緒的 不安을 덜 經驗하게 하고<sup>16)</sup> 身體的 能力減退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社會參與 또는 餘暇善用的 기회도 될 것이므로 職業機會의 제공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하겠다.

한편 就業의사를 趣味와 관련지어 보면 讀書 등 靜的인 趣向이 있는 노인중 일하겠다 및 일하고 싶다는 의사가 64.3%임에 비해 다소 동적인 취향의 꽃나무재배 등의 趣味活動을 하고 있는 老人은 71.1%가 일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 動的인 趣味를 갖는 老人들이 보다 높은 社會活動의 요구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취미도 없고 每事에 興味도 없이 일하기 싫다도 47.2%나 되고 있는 것도 老人들 特有的 現象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本 著者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老後의 健康問題가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을 提議하는 바이다.

1) 老後의 적극적인 健康維持法은 Stress를 피하기 보다는 극복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며 家

庭的, 社會的, 精神, 身體的 변화에 대하여 試行 錯誤的 과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老年期를 준비시키는 教育이 요구된다. 즉 老後를 위한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즉 人生設計(life cycle)를 젊어서부터 豫備知識과 준비가 있어야 하겠고, 늙어서 너무 자식에 대한 期待感, 執着性은 自身을 孤獨과 孤絶에 빠뜨리게 되는 結果가 되겠다. 心理的인 孤獨과 孤絶은 個人의 Personality에도 影響이 크다고 하겠다. 塚本<sup>22)</sup>는 「生産하는 것은 멀어져 가는 것이다」 자기육체에서 분리, 자기手摺에서 分離 成長하면 成長할수록 멀리 분리되는 것이 자신이다. 그것을 무리하게 붙잡으면 오히려 반발하여 뛰쳐나간다. 자식은 아무리 成長해도 자식이 고 父母는 아무리 늙어도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가버린 자식을 지켜보면서 하시라도 돌아 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愛情의 정리도 老父母로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崔<sup>23)</sup>는 분가이유를 「行動不自由」와 經濟問題 때문이라 했고,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媳父母와 同居를 반대한다고 했다.

老人들은 자식과 同居를 원하고 同居中에 있는데도 子婦와의 관계는 가장 누구 보다는 멀게 나타났다.

竹內<sup>20)</sup>는 봉건주의든 민주주의든 친자관계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親子關係이며 社會制度이 전의 것이라 하겠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므로 父母子息間에 유대와 화복으로 韓國的인 새마음의 家庭을 심고 즐거운 老後生活을 營爲 하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어떠한 家族構造의 변화를 맞이하든간에 家族構成員간에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 老後를 이해하고 家庭을 중심으로 확산, 보급시켜야 할 敬老思想의 再定立.

3) 老人이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安寧과 慰安을 얻기 위해 法的인 보장이 있어야하며 그에 따라 老人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社會參與의 기회를 제공하며, 健康問題가 상달될 수 있는 保健醫療施設의 확충 및 養老院 등 特殊福祉施設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IV. 總括 및 要約

1977. 5. 3~5. 30 사이에 江原道 原州市內 一部 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220명의 老人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老後生活 및 基本要求에 관하여 調査한 資料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老後生活에 대하여 老人들이 자식에게 도움을 바라는 의사는 54.1%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친족세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는 結婚한 자식과 동거를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2) 老後 生活의 책임은 「家族 責任이다」와 本人 責任이다」는 거의 비슷한 40% 내외로 나타났다.

3) 老後經濟 意識은 45.5%가 同居子息에 의존하겠다고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女性보다는 男性이 더 적극적인 經濟觀念이 確立되어 있음이 현저했다.

4) 220명의 老人들이 身體的으로 健康하여 「별 다른 支障이 없다」고 답변한 정도는 聽力 및 消化機能이 58.6% 및 56.8%로 비교적 그 障度가 가장 적었고, 다음이 拳動狀態, 齒牙機能, 視力狀態의 順으로 각각 34.1%, 29.5%, 13.2%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身體障度로 인한 불편의 호소는 高齡에 이룰수록, 男性보다는 女性이 높았다.

5) 주로 親族世帯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 老人들이 가장 많았고 아들은 17.3%, 다음이 親舊, 딸, 親戚 등의 順이었다. 자식의 恭敬程度에 만족하는 경우는 核家族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老人들이 제일 높아 58.3%였으며, 養老院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가장 낮아 28.1%였다. 한편 현재의 생활에 대하여는 52.8%만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年齡別로나 宗教的 差이는 보이지 않았다.

6) 就業에 대한 의사는 32.8% 및 25.9% 老人이 「일하겠다」 또는 「일하고 싶다」는 적극적

인 반응을 보였으며, 취미의 경향이 讀書 등 靜的인 것보다 꽃나무 재배 등 다소 동적인 일면이 있는 趣味를 갖고 있는 老人들에게서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參考文獻

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總人口 및 住宅調査速報
2. 韓東世, 精神科學, 一潮閣, 1966.
3. 權彥赫, 公衆保健學, 東明社, pp.149~150, 1971.
4. 安鴻子, 老人 生活에 影響을 주는 要因과 그들의 生活 適應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75.
5. 韓德順, 老人들의 基本要求에 關한 調査, 公衆保健雜誌 12(2) : 361~372, Dec., 1975.
6. 許程, 우리나라 一部 老人들에 對한 社會醫學的 研究, 서울醫大雜誌, 17 : 111~116, 1966.
7. 金弘植, 韓國老人 福祉에 關한 研究, 明知實業專門學校 論文集 第一輯, 1975.
8. Brunner & Suddarth, Textbook of Medical Surgical Nursing, 3rd ed, Lippincott, pp.208~217, 1975.
9. Freeman, R.B,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Saunders, pp.343~362, 1970.
10. 原州市 統計年報 1976. Hurtock.
11. 金宰子, 서울市內 一部 老人들의 疏外程度에 關한 調査研究, 大韓看證學會誌, 4(2) : 32~41, 1974.
12. 朴在侃, 老後-당신의 老後를 생각하자-, 二友出版社, pp.363~383, 1977.
13. 趙民수, 홍운선, 친족어대사전, 語文閣, p.325, 1977.
14. 韓忠鉉, 우리나라 一部 都市 老人들에 對한 社會醫學的 調査研究, 서울大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5.
15. 林鍾權, 農村 老人에 對한 社會醫學的 調査, 서울大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6.
16. 韓國應用心理學會, 看證心理學, 1972.
17. 金斗憲, 價值論, 博英社, 1975.
18. 田山草, 內外科看護學, 醫文社, 1972.
19.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75.
20. 竹內大眞, 快老訓, 土屋書店, 1975.
21. 孝橋正一, 老後老人問題, シネルウブ書房 1976.
22. 塚本 哲, 老後問題事典, ドメス出版, 1976.
23. Dr. D.B Bromley, The psychology of Human Ageing, 滕沼晴雄 監譯, 地域社會研究所
24. 崔信德, 文化人類學大會發表, 朝鮮日報 1977. 10. 11.

**=ABSTRACT=**

# A Survey on Nursing Needs and Opinions about the Aged Life

—Emphasizing on Basic Needs of the Aged—

In Kyu Lee, R.N., B.S.

*Weon Ju Nursing Junior College*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basic needs of the aged and differences in the idea of old age between average adults and the aged.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220 aged persons living in a part of Weon Ju City in Gang Weon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May 5 to May 30, 1977, the author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 I. Ideas of Old Age between the Aged and Average Adults:

1) In contrast with 14.9% of average-adults, 54.1% of the aged wanted to seek help from their sons(or daughters) in their old age. In both the average-adult group and the aged group, the rate was commonly higher among those who were living or wanted to live together with their married sons.

2) In average adult-group 58.3% said that they themselves were responsible for their old age, recording the rate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answered that the responsibility lies in a family. However, 40% of the aged answered that a family was responsible for their old age, recording nearly the same rate as that of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themselves were responsible for it.

3) As for the idea of economy it recorded highest(45.5%) in the aged group that they would be dependent on their married sons. Contrastively in average-adult group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rely on themselves, their estates or their pensions with the rate of 40.4%, 16.2% and 12.0% respectively. And male than female, as age decreased, revealed more positive economic idea conspicuously.

## II. Basic Needs of the Aged:

1) Comparatively many of the aged had no special disturbances in digestive function (56.8%) and auditory function(58.6%), and 34.1%, 29.5% and 13.2% of the aged had no special disturbance in their body movement, in teeth and in visuality according to the order mentioned. Female than male, as the age increased, showed a little higher rate in their corporal disturbances.

2) Most of the aged lived in a large family system and they were most familiar with their spouses(50.0%). And next their sons(17.0%), friends, daughters and relatives respectively. Those in a nuclear family system were most satisfied with their sons' respects for them(58.3%) and those in nursing home least(28.6%). On the other hand only 52.8% were content with their present life; there were no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and religion

3) As for the desire for a job, 32.8% and 25.9% of the aged said that they would work or wanted to work respectively. Those with active hobbies responded positively than those with passive ones.